

북한 과학환상문학에 나타난 ‘과잉열정’과 과학적 해결방식

서동수*

Ⅱ 차례 Ⅱ

- I. 서론
- II. ‘죽지 않는 어린이’들과 과잉의 문제
- III. 과잉열정과 과학적 합리성의 조화
- IV. 결론

【 】

본고의 목적은 북한 과학환상문학에 나타난 과잉열정의 문제와 이에 대한 해결방식을 고찰하는데 있다. 과학환상문학에 등장하는 모든 아이들은 스스로 자신의 욕망을 억압한다. 각 작품의 서두에서 각 인물들은 자신만의 개성을 지니고 있지만 결말로 가면서도 모두 동일한 인물로 귀결되고 있다. 여기에는 북한이 가지고 있는 어린이에 대한 특별한 관점 때문이다. 이는 어린이를 교정되지 않은, 혹은 교정을 기다리는 불완전한 존재로 바라보는 것이다. 북한 과학환상문학 속의 어린이는 마치 절제 되지 않는 리비도나 카오스 같은 존재로 바라보고 있다. 이러한 내면이 표출된 양태가 바로 개인주의나 이기심, 영웅심리라는 것이다. 이처럼 북한이 바라보는 어린이의 본질이란 예측불가능성과 폭력성에 있다. 하지만 진정한 두려움은 그것의 효과이다. 결코 죽지 않는 예측불가능성은 북한이 꿈꾸는 유토피아에 종말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북한 과학환상문학은 어린이의 과잉열정을 과학적 합법칙성을 통해 중화하고자 한다.

주제어 : 북한, 과학환상문학, 어린이, 윤리, 과잉열정

* 상지대학교 특성화기초학부 교수

I. 서론

본고의 목적은 북한 과학환상문학에 나타난 과잉열정의 문제와 이에 대한 해결방식을 고찰하는데 있다. 북한 과학환상문학은 주로 과학기술에 기반한 유토피아 사회와 인민들의 윤리성을 강조하고 있다. 그간의 연구들도 이러한 방향에서 이루어져 왔다.¹⁾ 이외에도 과학환상문학의 장르적 접근이나 정치적 무의식을 읽으려는 시도²⁾ 등이 진행되어 왔으나, 북한 과학환상문학 연구는 아직도 시작단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본고에서 주목하고자 한 부분은 ‘과잉열정’에 대한 두려움이다. 북한에서 과학환상문학이 등장한 이래 변하지 않는 테마 중의 하나가 ‘과잉’에 대한 경계이다. 말 그대로 통제되지 않는 ‘홀러넘침’의 상태인 ‘과잉’은 과학환상문학 속에서 늘 해결해야 하는 숙제처럼 다루어 왔다. 그 중에서도 열정의 과잉은 동일자의 생산이라는 문제와 항상 결부되어 나타난다. 주로 주체의 인간전형을 형성하는데 과잉열정이 일으키는 문제를 다루는 있는데, 대부분의 작품들은 ‘차이의 제거’라는 일정한 구조 속에서 그리고 있다.

우선 작품이 시작되면 3~4명의 아이들을 소개하는 장면들이 나오는데, 모두들 외모에서 성격에 이르기까지 제각기 개성적인 인물로 등장한다.³⁾

1) 마성은의 『리금철의 과학환상소설에 관한 고찰』, 『아동청소년문학연구』6호(2010.6)과 서동수의 『북한 과학환상소설에 나타난 사회주의 낙원과 역사적 조건들』, 『동화와 번역』19집(2010.6), 서동수, 『북한과학환상문학의 형성과 소련의 역할』, 『아동청소년문학연구』13호(2013.12) 등이 있다.

2) 서동수의 『북한 과학환상소설의 환상성과 인물의 형상화 방식』, 『동화와번역』27집(2014.6)과 복도훈의 『북한 과학환상소설과 정치적 상상의 도상(icon)으로서의 바다』, 『국제어문』65(2015.6) 등이 있다.

3) 1950년대 초창기 작품에서부터 1980~90년대 대표작들인 『번개잡이비행선』(1988), 『지구밖으로』(1990), 『열을 내는 꽃』(1991) 등의 과학환상소설집, 그리고 현재 간행되고 있는 『아동문학』, 『청년문학』 등에 수록된 작품들도 예외 없이 서너 명의 인물들이

예를 들어 리광근의 『로케트를 부르는 전파』(1988)에는 각기 개성적인 외모를 가진 인물이 등장한다. 의존적인 인물인 수남이, “서글서글한 눈매에 때이르게 점잔티”를 내는 영철이, “앵두알같이 빨간 볼”을 지닌 발랄한 소녀 봄순이가 그들이다. 성격 역시 다양한데, 라경호의 『사시절 입는 옷』(1988)에는 남들에게 과시하기를 좋아하고 성격이 급해 실험 도중 사고를 자주 일으키는 호일리와 매사에 꼼꼼할 뿐만 아니라 “사소한 부정확한 표현도 싫어하는”⁴⁾ 완벽주의자 세진이가 등장한다. 또 다양한 특기를 지닌 인물도 등장하는데, 조희건의 『예순일곱살난 소년』(1991)에 나오는 “전국 청소년기체체조선수권 보유자이자 미래의 우주비행사”인 호철이, “국제전 자계산기프로그램경기에서 금메달과 특등컵을” 받은 수현이, “세계의 첫 녀성우주의학자로 될 꿈을 안은 학교의 이름난 예술체조명수”⁵⁾인 레향이 그들이다. 과학환상이야기 『새별은석탐사대』(1979)에는 보다 많은 인물들이 등장한다. 반고수머리에 2학년 때부터 학급반장을 했으며 수학, 물리학, 화학, 생물학에 남다른 지식과 뛰어난 재능을 보이는 ‘척척박사’ 남솔이, “머리를 바투깎은데다 검실검실한 얼굴색을 한 축구선수”이자 천문학 박사인 한길이, “키가 큰 달리기 선수 금돌이와 몹시 까부는 억새”, “물리학을 잘 아는 주남이와 그리고 수성이, 철이”, “마음씨 곱고 노래에서도 피꼴새도 울고간다는 은별이, 온순한 분이와 꽃순이 등 독자적인 개성을 가진 인물들이 등장한다.

문제는 작품 서두에서 다양한 존재로 등장하던 인물들이 결말에 가서는

중심이 되어 이야기를 전개해나가고 있으며, 성비는 대개 남녀 2:1로 구성되어 있다.

4) 라경호, 『사시절 입는 옷』, 『(과학환상소설집)번개잡이 비행선』, 금성청년출판사, 1988, p.50.

5) 조희건, 『예순일곱살난 소년』, 『(과학환상소설집)열을 내는 꽃』, 금성청년출판사, 1991, p.38.

모두 하나의 인물로 수렴되고 있다는 것이다. 성격, 외모, 역할 등 그 많은 개체들의 차이가 결말에 이르러서는 모두 소멸하고 단 하나의 동일자만 남는다. 동일자란 등장인물 가운데 가장 이상적인 인물, 즉 위대한 과학자의 정신을 소유한 자이며, 모든 인물들은 ‘진정한 과학자되기’ 위해 불필요한 것들을 스스로 제거한다.

이러한 장면들은 여타의 북한문학이 보여준 공식, 이른바 ‘이상적인 공산주의자 만들기’의 관점에서 볼 수 있다. 북한의 아동문학이 보여주는 주제란 ‘주체의 인간학’의 범주를 벗어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 면에서 어린이를 주인공으로 한 과학환상문학 역시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여기에는 다음의 질문이 보충되어야 할 것이다. 왜 북한 과학환상문학은 과잉, 특히 어린이의 과잉열정을 두려워하는가. 이 질문이 중요한 것은 그동안 정치적 계몽의 시선에서 바라보던 북한 아동문학(과학환상문학 포함하여)을 다른 관점에서 읽을 수 있도록 해주기 때문이다. 게다가 미래 사회를 구성하는데 있어 북한이 근원적으로 두려워하는 대상이 무엇인지 작품을 통해 유추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북한 과학환상문학 속에 나타난 억압을 욕망하는 어린이들과 이들의 과잉열정에 대한 고찰은 어린이를 훈육의 대상으로 보는 관점을 넘어 ‘어린이’를 바라보는 북한의 근원적인 시선을 밝히는 작업이 될 것이다.⁶⁾

6) 과잉열정과 이에 대한 교정의 문제는 과학환상문학의 초기부터 지금까지 일관된 소재로 등장하고 있다. 다만 본고에서는 지면의 한계와 논의의 선명성을 위해 1980~1990년대 작품을 중심으로 다루고자 한다.

II. ‘죽지 않는 어린이’들과 과잉의 문제

과학환상문학이 유토피아 건설의 죄악으로 삼은 요소들은 주로 윤리적 측면이다. 북한문학에서 윤리성을 강조하는 것은 새삼스러운 일이 아니다. 주체사상을 바탕으로 “사람들을 더욱 힘있는 존재로 키우는 사상적 무기”이자 “인간해방의 참다운 교과서”⁷⁾인 문학이 공산주의 인간의 품성을 다루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윤리적 측면에 주목을 해야 하는 이유는 북한의 과학환상문학과 서구 과학소설과의 관계, 즉 서구 과학소설에 대한 일종의 안티테제적인 측면 때문이다. 북한은 과학기술의 진보가 유토피아 건설의 필요조건은 되지만 충분조건은 될 수 없다는 것을 지속적으로 강조한다. 왜냐하면 과학환상문학에서 중요한 것은 “과학기술탐구 그 자체가 아니라 과학탐구를 하는 사람”⁸⁾이기 때문이다. 북한이 서구 과학소설을 비판하는 지점도 이 부분이다.

제국주의자들은 반동적인 과학환상문학을 침투시킴으로써 인민들의 혁명 정신과 계급적 각성을 무디게 하고 민족자주의식을 마비시키는 한편 로동계급의 과학환상문학자체를 병들게 만들려 하고 있다.

그들은 소설, 영화 등에서 자유분방한 환상의 수법을 악용하여 있지도 않고 있을수도 없는 황당한 이야기들로 인민들을 기만하고 우롱하여 혁명적 기세를 꺾어보려고 한다.

더구나 제국주의 앞잡이들인 반동적인 <과학환상문학작가>들은 이 소동에 발맞추어 부당하게도 환상문학을 통하여 제국주의자들의 반인민적인 견해

7) 사회과학원 문학연구소, 『주체사상에 기초한 문예이론』, 사회과학출판사, 1975, p.12.(우리나라에서는 인동출판사에서 『북한의 문예이론-주체사상에 기초한 문예이론』으로 출간되었으며, 인용은 이 책에서 하였다.)

8) 황정상, 『과학환상문학창작』, 문학예술종합출판사, 1993. p.14.

를 선전하며 특히는 청소년들을 타락시켜 그들의 혁명투쟁을 거세하려고 미쳐날뛰고 있다.⁹⁾

북한이 볼 때, 자신들의 과학환상문학이 과학적 세계관뿐만 아니라 자주적이고 혁명적인 세계관을 부여하는 것과 달리 서구의 과학소설은 “인류위기를 대대적으로 퍼뜨림으로써 인민대중들로 하여금 비관주의, 염세주의에 빠져 미래에 대한 신심을 잃고 세계의 주인으로서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게 투쟁의욕과 혁명의식을 마비”시키고 있다. 게다가 “미국신변중인 실용주의 철학을 이론적 바탕으로 하고 있는 실용주의 과학환상문학에서는 근친상간, 동성애, 변태성욕, 학대음란증 등 부화방탕한 생활을 반영하고 있으며, 과학기술수단으로 무장된 강도, 갱, 협잡군, 불량배, 폭행자 등 인간쓰레기들을 등장인물로 설정”¹⁰⁾하고 있다. 이는 결국 인민들의 ‘민족자주의식을 마비’시키고, ‘인민들을 기만’하며, 특히는 ‘청소년들을 타락시켜 결국은 그들의 혁명투쟁을 거세하려고 미쳐 날뛰’게 하는데, 이처럼 서구 과학소설의 파괴적이고 종말론적인 상상력이야말로 과학에 대한 주체의 비윤리성에서 비롯된다는 판단이다.¹¹⁾

북한 과학환상문학이 보이는 윤리에 대한 강박적 태도는 주로 이기주의(개인주의), 영웅심리, 자만심, 나태함 등이다. 과학환상문학에서 보이는 갈등의 주된 원인 또한 바로 이러한 윤리적 결함이다. 과학기술적인 문제들은 부차적인 것으로 나온다. 항상 근본적인 문제는 주체 과학자로서 혹은 주체의 인간으로서의 윤리적 결함이다.¹²⁾ 이기주의나 영웅심리는 집단

9) 황정상, 앞의 책, p.28.

10) 위의 책, pp.31-32.

11) 위의 책, p.88.

12) 물론 미국이나 일본 등 제국의 침입도 중요한 갈등의 요소이다. 하지만 이는 내부의 단결을 위한 외적 요소의 성격이 강하다. 결국 문제 해결의 시작과 끝은 내부 구성원

의 힘을 약화시키는 주범이다. 조희건의 『번개잡이 비행선』(1988)에서 용이는 유명한 과학자 집안이자 “그 누구에게도 뒤져본 적이 없는 어린 수재”이다. 10월에 개최될 전국청소년발명품전시회에 “번개잡이 비행선”을 출품하기 위해 로켓연구소와 소조원을 새로 구성하던 중 용이는 생물소조원 정희가 연구에 합류한다는 소식을 듣고 불쾌해 한다. 용이는 “연구성과는 어디까지나 개별적 과학자들의 독자적인 뇌수활동의 산물”이라고 믿고 있다. 게다가 정희가 전자공학에 무지할 뿐 아니라 그녀의 아버지는 도예술단 지휘자, 어머니 피아노 연주를 하는 이른바 예술가집안이기 때문이다. 유전결정론과 엘리트주의에 사로잡힌 용이는 자신의 힘으로 모든 것을 해낼 수 있으며, 따라서 모든 영광도 자신의 것이어야 한다고 믿고 있다.

① “정희가 구상한 개구리 눈알모양의 탐지기 원리가 아주 그럴듯 해, 우리 한번 들어보지 않겠니?”

“체, 들어보나마나야, 야, 그렇게 쉽게 될 것 같으면 내가 벌써 만들지 않았으리, 이 용이가 말이야, 래일이면 좋은 안을 내놓을테니 너희들은 탐지기 만들 준비나 해!”¹³⁾

② “용이야 내말을 명심해 듣거라.

과학과 기술이 발전할수록 과학탐구분야는 더욱 세밀해지고 뭘하나 새로운걸 만들자고 하면 그만큼 더 여러부문 과학자들의 지혜와 힘이 합쳐져야 한다. 지금에 와선 집단의 힘에 의거하지 않으면 과학연구사업은 그만큼 빛을 볼 시간이 늦어지는 법이란다.“

용이는 머리를 푹 떨구었다. 아버지의 말이 이때처럼 가슴에 파고 든적이 없었다. 눈곱이 펴 젖어들었다.¹⁴⁾

의 사상의식이다.

13) 조희건, 『번개잡이비행선』, 『(과학환상소설집)번개잡이비행선』, 금성청년출판사, 1988, p.35.

용이는 번개잡이비행선이 성공해 환호하는 동무들에게 답례를 보내는 상상을 하며 “박사가 다 된 기분”을 누리던 중 집에 돌아온 아버지의 냉정한 태도에 당황한다. 친구들은 모두 연구소에서 밤새 연구에 매진하고 있는데, 왜 혼자 집에 있느냐며 나무라는 것이다. 아버지는 “동무들의 힘을 믿지 못하고 저만 똑 잘난 체하며 으스대는 못된 버릇”을 가진 용이를 꾸짖는다. 이 작품의 주제는 이로써 모두 드러났는데, 개인주의 대 집단주의, 엘리트주의 대 숨은 영웅 그리고 학제간의 융합이 그것이다. 표면의 주제는 번개잡이비행선 완성의 과정이지만 진정한 주제는 개인의 교만 대 집단적 힘의 대결이다. 과학적 성과를 이루기 위해서는 이기심, 영웅심을 버리고 집단의 힘을 사용해야 하며, 서로 간의 조화야말로 성공의 지름길임을 강조하고 있다.

엄호삼의 『P소행성을 찾아』(1999)에서는 “내 처음으로 발명하는 것이 남의 도움으로 되었다고” 불쾌해하는 영일이를 향해 “헛된 자존심이었고 비뚤어진 고집”, 기껏해야 “자기의 명예”를 위한 “개인공명주의”일 뿐이라며 강하게 비판한다. 왜냐하면 “과학은 조국의 부강번영을 위한 전초선”이며 “이 초소들을 지켜선 과학자들이 서로 돕고 도움을 받는거야 웅당”¹⁵⁾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 작품의 주제도 결국은 영일이처럼 “사심 없이 순결한 량심을 가지고 조국을 받들어서” “조국의 기억 속에 남는 참된 과학자”가 되어 가는 것이며, 이를 위해 영일이가 자신의 이질성을 제거하고 대타자의 욕망을 욕망하는 정철이와 동일한 존재가 되는 것이다.¹⁶⁾

14) 조희건, 앞의 책, p.37.

15) 엄호삼, 『P소행성을 찾아』, 『청년문학』, 1999.8, pp.34-35.

16) 이 외에도 리광근의 『열을 내는 꽃』, 신승구의 『101번째 과학소조원』(1991), 리광근의 『과수원을 가꾸는 나비』(1988), 조동욱의 『로봇의 나라』(1988), 문희준의 『퐁마어를 찾아서』(1964) 등도 개인주의적인 성향을 가진 인물들이 집단주의 인간으로 동일화되는 과정을 다루고 있다. 또 영웅심리는 1등을 차지하기 위해 공동체에 분열을

이러한 윤리적 문제가 중심이 되는 이유는 과학환상문학의 목적, 즉 “자주적인 인간전형, 사회정치적 생명을 위하여 육체적 생명을 기꺼이 바칠 줄 아는 우리 시대 인간들의 본보기, 미래의 사회에 살게 될 인간형상”¹⁷⁾을 내세우기 위해서이다. 그래서 작품 속 “과학자들은 탐구와 사랑에서 자기리기적이지 아니라 자기희생적이어야 한다는 종자”¹⁸⁾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왜 북한 과학환상문학은 윤리적 문제를 어린이에게 집중적으로 제기하고 있는 것일까? 북한에서 표방하는 이유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어린이들에게 정직한 품성을 키워주는 보다 심각한 교양문제와 잇닿아”¹⁹⁾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황정상은 이상적인 주인공보다는 ‘성장하는 인물’의 형상화를 강조한다. 황정상의 창작론에 따르면, “모든 인물은 어느 경우든지 다 성장하는 인물로 형상화”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그 성격은 진실하고 생동하게 안겨올 수가 없다.”²⁰⁾는 것이다. 둘째, 어린이의 미성숙이다. “어린이들과 학생소년들은 생활체험이 부족하고 사고방식도 극히 단순한 것으로 하여 인식능력에서 제한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무엇이 선한 것이고 무엇이 악한 것인가 하는 것을 알기 쉽게 보여줌으로써 선한 것을 지향하고 악한 것을 미워하는 정신으로 교양하는 것이 중요”²¹⁾하기 때문이다. 또 하나는 서구 과학소설에 나타난 제국주의

가져오는 이야기이가 주를 이루고 있는데, 『로케트를 부르는 전파』(1988), 『사시절 입는 옷』(1988), 『밝혀진 유전의 비밀』(1988), 『무중력 비행선』(1990), 『번개잡이비행선』(1988), 『태만이가 얻은 보물』(1991), 『마지막 4분』(2002) 등이 여기에 속한다.

17) 황정상, 앞의 책, p.59.

18) 위의 책, p.127.

19) 김정일, 『주체문학론』, 조선로동당출판사, 1992, p.257.

20) 위의 책, p.164.

21) 위의 책, p.268.

자들의 사상문화적 침투를 방어하기 위해서이다. 특히 수정주의자들은 “과학환상문학분야에서 부르쥬아 사상과 부르쥬아 생활양식을 퍼뜨리고 자본주의를 되살리기 위하여 교활하게 책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 사소한 사상독소도 우리 내부에 침습하지 못하게”²²⁾ 하기 위한 일종의 ‘백신’ 같은 것으로 윤리적 문제를 제기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여기에는 보다 심연의 이유가 존재하고 있다. 과학환상문학이 억압하고자 했던 것은 윤리를 가장한 ‘욕망’이었다. 아이들은 그 욕망을 통해 동일화에 포섭되지 않을 수 있었으며, 동시에 존재론적 차이(개성)를 확보할 수 있었다. 하지만 과학환상문학의 계몽성은 이러한 욕망들을 모두 윤리적 결함으로 분류하고 억압하고 있었다. 즉 어린이들을 향한 끊임없는 억압장치의 작동은 아이들로 하여금 ‘스스로 억압을 욕망하는 주체’로 호출한다. 여기에는 윤리적(혹은 정치적) 계몽을 넘어서는 본질적인 문제가 함의되어 있는데, 바로 ‘어린이’에 대한 두려움이다.²³⁾ 앞에서 보았듯이 과학환상문학에서 다루는 부정성은 모두 ‘어린이’를 통해서이다.²⁴⁾

꼬마들의 합세란 도리어 시끄러운 것입니다. 그애들은 우리의 일손을 덜어주는 것이 아니라 더해주니까요.

“너희들은 안돼!”

나의 이 말에 충일이는 단박 입술을 빼죽이 내밀었습니다.

22) 위의 책, pp.32-33.

23) 북한의 어린이가 훈육이나 교정의 대상임은 익히 알려진 바다. 북한에서 어린이를 교정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이유 중의 하나는 계몽을 통한 변화가능성을 수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여기서 논의하려는 내용은 교정의 대상으로 어린이를 바라보는 또 다른 원인을 논하기 위해서이며, 그것을 ‘두려움’에서 찾고자 하였다.

24) 청년이나 성인을 다루는 작품에 나오는 부정적 심리 역시 마찬가지다. 그들의 문제는 어린 시절 내재되어 있던 윤리적 결함을 극복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하는 것이다. 그래서 개인주의나 이기심 등은 단지 어린이의 문제로만 귀착되지 않는 것이다.

“씨- 왜 안된다는거야. 우리도 가겠어.”

“시끄럽게 굴겠니? 저리 물러가!”

(중략)

“이런 철부지들을 데리고 먼바다에 나갔다가 어쩔려구 그러니, 괜히 우리들 짐이나 돼.”

(중략)

과연 이 애들이 궁전에 돌아가면 잡자코 공부를 할가요? 공부는 커녕 무슨 대단한 이야기거리나 알고 있는 듯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오늘 일에 대해 짹짹 거릴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소조의 위신은 땅바닥에 떨어지는 이 비상사고가 한입 건너 두입 건너 온 궁전에 짹 퍼질 것은 뻔합니다.²⁵⁾

리금철의 『탐험선이 떠난 뒤』(1998)의 예시문은 어린이들을 책망하는 단순한 장면으로 볼 수 있지만, 여기에는 어린이를 바라보는 북한의 불편한 내면이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다. 그들에게 어린이는 금지의 대상일 뿐이다. 어린이의 속성이란 참새처럼 시끄럽거나 하고 일손을 덜기보다는 더 크게 만들고 괜히 사회의 짐이나 되는 철부지 같은 존재이다. 또 배움보다는 드러내기를 좋아하며, 사람들의 위신을 떨어뜨리고 결국은 사회를 위협에 직면케 하는 “비상사고”를 일으키는 존재일 뿐이다. 이들은 마치 절제되지 않는 리비도나 카오스 같은 존재로 그려지는데, 이는 어린이를 교정되지 않은, 혹은 교정을 기다리는 불완전한 존재로 바라보는 것이다. 이러한 내면이 표출된 양태가 바로 개인주의나 이기심, 영웅 심리이다. 이처럼 북한 과학환상문학에서 어린이는 문제를 야기하는 불길한 속성을 지닌 존재들이다.

그 ‘불길함’이란 예측불가능성과 폭력성이며, 북한이 어린이를 두려워하는 근원이다. 잘 알려진 것처럼 어린이에 대한 북한의 시각은 이중적이다.

25) 리금철, 『탐험선이 떠난 뒤』, 『아동문학』, 1998.7, p.30.

한편으로 ‘나라의 꽃봉오리이며 미래의 주인공’이지만, 이 수사학적 이면에는 무지와 광기, 야만의 속성에 대한 경계와 교정의 필요성이 전제되어 있다. 『아동문학』 등의 잡지에서 끊임없이 ‘지덕체’를 강조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는 ‘아이에서 어른으로’라는 전형적인 계몽주의적 아동관이다. 이기적이며 자만심과 고집을 피우던 철없던 아이가 집단과 조국의 위대한 발전을 위해 희생할 줄 아는 진정한 과학자로 거듭난다는 서사구조는 어린 이를 무지와 광기의 표상으로 받아들이는 계몽주의적 훈육방식에 닿아있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이러한 경고와 교정의 필요성이 모든 작품에 일관되게 지속, 반복하여 등장한다는 점이다. 마치 반복강박증 환자와의 같은 이러한 증상은 단지 ‘어린이의 속성’에 대한 주의와 경계를 넘어서는 보다 본질적인 두려움을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즉 세대를 넘어서면서까지 경계한다는 것은 그 불길함을 일종의 ‘죽지 않는 어떤 것(undead thing)’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반증이다. 초창기부터 지금까지 어린이에 대한 계몽을 다루고 있다는 것은 이것이 단지 억압에 의해 소멸될 존재가 아님을, 지책의 표현대로 ‘외설적인 불멸성’을 지닌 존재임을 스스로 내보이는 것은 아닐까.

실제로 불길한 속성으로서의 ‘아동성’²⁶⁾은 파괴 불가능한 것처럼 보인다. 마치 공포영화의 엔딩처럼, 소멸한 듯 했으나 다시 살아나 불멸성을 증명하는 것과 같다. 아동성의 ‘변신 가능성’은 개인주의를 통해 볼 수 있다. 과학환상문학에서 ‘죄악’은 주로 개인주의를 통해 표상되는데, 이 둘은 거의 동의어처럼 쓰인다. 하나의 이상적인 인간형을 추구하는 사회에서 가장 위협적인 것은 바로 ‘존재론적 차이’이다. 과학환상문학은 그 ‘차이’를

26) 여기서의 ‘아동성’은 북한 과학환상문학 속 어린이의 개인주의, 이기심, 영웅심리 등과 이러한 것의 원천이 되는 예측불가능성, 폭력성, 광기 등을 일컫는 용어로 한정하여 사용하고자 한다.

개인주의로 보고 있다. 그런데 개인주의는 이기심, 자만심, 영웅심, 교만 등의 얼굴로 끊임없이 모습을 바꾸어 등장한다. 뿐만 아니라 다른 장르로도 자신을 이전시킬 수 있다. 개인주의는 북한이 두려워하는 '불길함'의 숙주와 같다. 그래서 "청소년 교양에서 나서는 절실한 문제의 하나가 개인리 기주의를 짓부시고 집단주의 정신을 키우는 것"²⁷⁾이라고 강조하는 것이다. 북한 과학환상문학에서 개인주의를 마성적인 존재로 바라보는 이유도 여기서 기인한다.

하지만 어린이를 향한 진정한 두려움은 그것이 갖는 효과 때문이다. 죽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자유자재로 변신이 가능한 예측 불가능한 괴물(thing)이야말로 북한이 꿈꾸는 유토피아를 종말론적인 과국의 상황으로 몰고 갈 수 있기 때문이다. 어린이를 억압하려는 목적이 여기에 있다. 두려움의 대상을 통제 가능한 대상으로 교정하려고 하지만, 그것이 불가능할 때 할 수 있는 것이란 바로 두려움의 대상을 끊임없이 두려움의 대상이라고 알리는 것이다. 즉 불길한 속성이 죽지 않듯이, 계몽도 영원히 지속되어야 하는 것이다. 소멸시킬 수 없다면, 영원히 억압과 계몽의 감옥에 가두어 두는 것, 그것이 바로 어린이를 훈육과 계몽의 대상으로 반복하여 등장시키는 이유이다.

림종철의 『로보트가 싸울린 포탄』(1991)은 왜 어린이를 두려워해야 하는지 잘 보여준다. 이 작품의 문제성은 어린이의 절제되지 않은 과도한 열정, 자만심 그리고 신중하지 못한 결정이 가져오는 위험성이다. 작품 자체의 서사는 간단하지만 메시지는 강렬하다. 복통을 일으킨 미생물을 없애기 위해 지구의 모든 미생물을 없앴으로써 사회 전체가 마비된다는 이야기는 비록 황당하지만 북한이 두려워하는 실체를 보여주기 때문이다.

27) 황정상, 앞의 책, p.273.

“너 도데체 어찌자는거냐? 인조고기두 몽땅 망쳐버리고 식료공장두 제약 공자두 다 몇개 만들구.”

“너 나라에 얼마나 손해를 주었는지 알기나 하니? 오늘 식료공장에선 사탕 만 해두 백여톤이나 못만들게 됐다는거야. 제약공장은 또 어떻구.”²⁸⁾

북한 과학환상문학에서 끊임없이 어린이의 욕망을 억압하려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어린이들의 통제 불가능하고 괴물 같은 욕망을 억압하지 않았을 때 벌어지는 일이란 식료공장과 제약회사, 심지어 주사기를 소독하기 위한 메탄가스와 바다연구소의 미생물이 모두 멈춰버리 듯 파국적 상황의 도래이다. 미생물을 잠재우는 “약포탄” 사용의 경고에도 “흥, 그런 걱정은 그만 뒤, 내가 바로 책임기박사로 소문이 짜한 수만이란다. 내가 쏴테니 이리 내놔.”처럼 위협에 대한 경고를 무시하고, “책을 많이 읽는다는 뜻이나 부리면서 수박겉핥기식으로 한 공부”(p.51)하는 자만심과 허영심이 현실에 옮겨졌을 때 실제로 북한이라는 사회를 위협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엄호삼의 『영남이가 찾은 교훈』(1997)에서도 생명의 위협을 가져 온 결정적인 계기는 “꼬마발명가로 온 나라에 짜하니 이름을”²⁹⁾ 날리겠다는 욕망이다. 저 절제되지 않는 욕망으로 인해 자신의 목숨뿐만 아니라 집단의 과학적 발견에도 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것이다. 조동옥의 『탐구의 길에서』도 영웅주의가 집단에게 어떠한 위협을 안겨주는가를 보여준다. 친구들이 던진 말 -“금붕이가 배에 오르면서부터 어른티를 내면서 앵무새놀음을 하지 말라고 하던 말”-이 “속에 맺혀 내려가지”³⁰⁾ 앓던 철용이는 “한 번 본

28) 림종철, 『로보트가 쏜 올린 포탄』, 『아동문학』, 1991.1, p.50.

29) 엄호삼, 『영남이가 찾은 교훈』, 『아동문학』, 1997.5, p.21.

30) 조동옥, 『탐구의 길에서』(1회), 『아동문학』, 1984.1, p.21.

때를 보이자고 속으로 버르고” 있었고, 미제의 핵무기 시설을 발견해 “동무들 앞에 큰소리”치기 위해 독단적으로 행동하다가 자신뿐만 아니라 집단의 생명을 위협하게 만든다.

인차 돌아갈줄 알고 몰래 빠져나온 자유주의적 행동이 선생님과 동무들에게 근심을 끼쳤을뿐만 아니라 자신도 이런 위협에 빠지게 되었던 것이다.

철룡이는 갈린 목소리로 말했다.

“선생님, 잘못했습니다. 저의 자유주의 때문에 이렇게...”

“철룡이는 자유주의뿐만 아니라 개인영웅주의도 있지!”

하고 선생님은 웃으면서 말했다.

동무들이 철룡이가 있는데를 어떻게 알아냈는가에 대한 선생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철룡이는 학교에서 말로만 외우던 집단주의 정신과 집단의 힘이 얼마나 큰가를 심장 깊이 느끼었다.³¹⁾

자유주의와 영웅주의로 상징되는 어린이의 괴물성이 그대로 노출되어 있다. 통제되지 않은 욕망이 선생님과 동무들 그리고 자신에게 미치는 영향은 작품 밖에서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 것이다. 아이들의 내면에 도사리고 있는 저 괴물성은 외부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이 과잉이라는 것은 인간의 욕망 그 자체와 한 몸 속에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³²⁾ 따라서 과잉은 없앨 수 없다. 그렇다면 방법은 통제하는 것이다. 작가는 절제되지 않는 힘을 가둘 수 있는 힘이 집단임을 힘주어 말한다. 개인은 집단 안에 있을 때 비로소 안전해질 수 있다고, 집단의 정신과 힘에 의지할 때 내부의 괴물은 잠잠해진다는 진리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31) 조동욱, 『탐구의 길에서』(2회), 『아동문학』, 1984.2, p.30.

32) 슬라보예 지젝, 이현우 외(옮김), 『폭력이란 무엇인가』, 난장이, 2012, p.104.

Ⅲ. 과잉열정과 과학적 합리성의 조화

모두가 조국이라는 대타자의 욕망을 모방하고 수용해야 하는 곳에서 이 질적인 존재의 이질적인 욕망은 너무나 낮설고 위험한 것이다. 문제는 과학환상문학이 결코 소멸하지 않는 두려움의 근원을 통제 가능한 영역으로 밀어 넣어야 하는 과제를 맡았다는 것이다. 그 첫 번째 방법이 앞에서 언급한 지속적인 억압이다. 매 작품마다 두려움의 대상을 제시하고 여러 사건을 통해 반성과 교정을 요구하며, 집단의 힘과 정신을 강조하는 것이다. 하지만 어린이에게 내재된 외설적 불변성으로 인해 이 방법의 한계는 이미 정해져 있다.

두 번째는 보다 정교한 방법으로써, 괴물에게 안전판을 설치하는 것이다. 바로 ‘과학적 합리성’이다. ‘죽지 않는 어린이’의 특징은 과잉에 있다. 결코 멈출 줄 모르며 계속 춤을 추게 만드는 안데르센의 『빨간구두』의 이야기처럼³³⁾ 어린이들의 이기심과 욕심 그리고 자만심에는 결코 끝이 없다. 이러한 끝없이 만족할 줄 모르는 욕망은 인물들을 필연적으로 ‘과잉열정’으로 이끈다. 한계를 모르는 열정에게 파국은 필연적이다. 따라서 위기관리를 위해서라도 과잉은 통제되어야 하는데, 과학환상문학이 제시한 방법은 ‘과학적 합리성’이다.

문희준의 『룡마어를 찾아서』(1964)는 주인공 ‘나’와 민수가 잠수정을 타고 바다 속 ‘룡마어’를 찾아가는 여정을 다룬 작품이다. 룡마어는 “바다뱀, 게르마늄, 인듐 등 희유 원소와 지상에서는 아직 발견된 적이 없는 새로운 희유 원소들이 포함되어 있는”(pp.45~46) 물고기이다. 모든 파국의 원인은 결국 룡마어를 발견하겠다는 ‘나’의 과잉열정이다. 늘 신중하고 어른스

33) 슬라보예 지젝, 『HOW TO READ 라캉』, 지식하우스, 2012. p.98.

러운 친구 민수에게 “한번 본때를 보여 주리라”(p.50) 마음먹은 ‘나’는 룡마어 서식지 발견에 온 신경을 집중한다. ‘나’의 ‘자유주의적이고 영웅주의’는 그대로 열정의 과잉으로 이어진다. ‘나’는 자신의 과잉열정을 “탐험 사업엔 무엇보다 대담성”이라고 합리화 하며, 말보다는 “행동으로 증명”(p.51)하려 한다. 대담성과 행동으로 위장된 과잉열정은 현재의 상황을 파국을 향해 “전속으로 전진하도록 명령”하여 탐험대원을 위험에 빠뜨린다. 자만심의 과잉이 열정의 과잉을 일으키고 결국엔 연쇄반응처럼 파국으로 이어진다. 모두를 위험에 빠뜨린 후에야 자기반성이 시작되면서 작품은 과학적 합리성의 필요성을 역설한다.

① “과학성이 없는 맹목적인 대담성은 모험에 불과한 거야.”³⁴⁾

② 확실히 나에겐 헤덤비는 성미, 남보다 그리고 혼자서 성과를 내어 우쭐하려는 욕심, 진지한 탐구정신이 없는 등의 결함이 있지. 민수의 성미를 꼬밀 꼬밀이 아니라 차근차근하고 진지한 성미라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되었다.

“애 내가 잘못했어! 이젠 정말 덤비치지 않을테다!”

나는 룡이 아니라 진심으로 민수에게 말했다.(p.60)

결국 이 작품의 주제는 위의 두 인용문으로 모두 설명된다. 헤덤비는 성격, 남보다 먼저 그리고 혼자서 성과를 내어 영웅이 되겠다는 과잉욕망은 진지한 탐구정신의 결여로 인해 “무슨 사고”를 일으키는 원인이 된다. 이때 과잉열정의 위험과 폭주에 대한 경고가 바로 “과학성이 없는 맹목적인 대담성은 모험에 불과”하다는 언급이다. 과잉열정의 또 다른 이름인 “맹목적인 대담성”이 교정되기 위해서는 경고에 그칠 것이 아니라 동일화의 여

34) 문희준, 『룡마어를 찾아서』, 『아동문학』, 1964.1, p.51.

정까지 마쳐야 한다. 즉 ‘나’는 반성을 통해 민수(처림)가 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룅이 아니라 진심으로” 자신의 “결합”에 대해 반성한다. 한편 이 작품은 과학환상문학의 역할을 숨기지 않고 있는데, 작품 마지막에 ‘나’는 독자에게 당부의 말을 한다. “가만! 끝으로 꼭 한 가지 귀뜸할 말이 있다. 그러한 탐구 탐험 사업에서 나처럼 덤비거나 우쭐하려고 하걸랑 말어.”(p.61) 이 장면이야말로 과학환상문학이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지점을 정확히 보여준다. 즉 허구적 사건이 현실에 진입해 올 수 있다는 강박증을 그대로 노출하고 있는 것이다.

림희철의 『룅궁기지로 가는 길에서』(1990)도 과잉열정을 보여주고 있다. 이 작품은 소년우주소조원 광수와 정민이 특수합금강을 제작할 자동공장 “룅궁기지”를 건설하기 위해 소행성으로 가면서 벌어지는 이야기이다. 이 특수합금강 생산은 광수가 성공한 것으로 “인류가 수세기 동안 꿈꾸어 오던 행성간여행을 실현하게 할 광속로켓”의 재료이다. 사건의 시작은 광수의 열정이다. 개인의 명예와 영달을 위해 광수는 위험한 직선항행을 주장한다. 정혁은 운석 등 예기치 못한 위험을 말하며 보다 신중할 것을 주문하지만 광수는 “모험이 없이는 위대한 발견과 발명이 있을 수 없다”라고 잘라 말한다. 결국 이 작품의 주제는 어떠한 모험인가에 대한 질문이다. 즉 과학적 합리성을 담보한 모험인가 아니면 “위대한 발견과 발명가로 이름”을 떨치고, “권위 있는 우리연구소의 학위칭호”³⁵⁾를 받기 위한 과잉열정의 모험인가에 대한 답변이다. 작품은 무엇이 문제였는지를 정확히 지적한다.

“정민아, 나는 욕망이나 용감성 하나만을 가지고서는 과학의 요새를 점령

35) 림희철, 『룅궁기지로 가는 길에서』, 『(과학환상소설집)지구밖으로』, 금성청년출판사, 1990, p.103.

할 수 없다는 것을 이번에 똑똑히 알았어, 네가 그렇게 좋은 동무인걸 모르고 난...”

비행선은 그들의 뜨거운 마음을 안고 <룡궁기지>에로의 직선길을 힘있게 헤쳐나갔다.³⁶⁾

결국 문제는 과학성이 결여된 욕망과 융감성이다. 거대한 운석의 바다를 무사히 지나갈 수 있었던 것은 정민 때문이었다. 정혁 역시 “겉으로 보기에는 태연한 것 같지만 마음속은 그렇지 않았다. 그는 소행성으로 하루빨리 가고 싶었다. 아니, 지금 당장이라도 가고 싶었다.”(p.103) 그럼에도 정민이 광수와 다른 점은 과학적 합리성 때문이다. 정민은 자신의 욕망을 실현하기 위해 운석과 같은 장애물을 제거할 수 있는 “ $\gamma-1$ ” 개발에 착수한다. 우주에서의 긴 항행은 “천만뜻밖의 위험을 동반한다는” 점, 특히 “제일 위험하다는 것이 운석”임을 인지한 정민은 “그러한 장애물들을 원만히 뚫고 나갈 수 있는 기구를 가지지 않고서는 생명을 과학적으로 담보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전자포로도 쓰면서 자석처럼 운석을 끌어당기기도 하고 앞으로 내밀기도 하는”(p.114) 전자포 “ $\gamma-1$ ”를 개발하여 위기를 넘길 수 있었던 것이다. 엄호삼의 『영남이가 찾은 교훈』에서도 강조하듯이 “과학이란 실력으로 하는거지 욕망만 앞으로 세운다고 되는게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과학적 합리성이 결여된 과잉열정은 “이도 안난게 콩밥 먹겠다”³⁷⁾는 것과 다름없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가장 이상적인 모습은 어떻게 제시되고 있을까. “과학의 요새”를 점령해야 할 과학자에게 가장 필요한 것에 대해 과학환상문학의 답변은 ‘열정과 과학적 합리성’의 조화이다. 조희건의 『밝혀진 유전의 비밀』(1988)

36) 림희철, 앞의 책, pp.114-115.

37) 엄호삼, 『영남이가 찾은 교훈』, 『아동문학』, 1997.5, p.22.

은 그 해답을 보여주고 있다.

① “과학연구에서 생명은 과학자의 신념과 자질이예요. 과학탐구에서 거둔 열매로 조국의 부강발전에 한몫 하겠다는 드놀지 않는 결심, 전공지식뿐만 아니라 연관부문의 지식까지도 환히 꿰뚫고 있는 과학자의 자질, 이것만 가지면 점령못할 과학의 요새란 있을수 없어요”³⁸⁾

② 과학이란 참으로 이상한 <물건>이다.

사람들의 지향이 아무리 열렬하다 해도 <자기>의 요구를 어느 하나라도 들어주지 않으면 요새의 <문>을 도무지 열어주지 않는다.

그러나 일단 과학의 합법칙성을 이해하고 논리적으로 파고들어가면 과학이야말로 아주 명백하고 단순한 것이다.(p.96)

열네 살의 철민이와 은옥이는 “소고기나무의 육종과 재배방법”을 위해 연구하고 있지만 계속된 실패에 철민이는 “우리에게 정열이 부족해, 정열이…”(p.93)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정열은 단순한 과잉열정이 아니다. 그들이 말하는 열정은 이른바 과학자의 신념과 자질을 수반한 과학적 열정이다. 즉 진정한 과학자가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의 조건을 갖춘 과잉열정이 되어야 한다. 조국을 향한 과잉열정과 “과학의 합법칙성을 이해하고 논리적으로 파고 들어가는” 과학자의 자질을 향한 과잉열정이 그것이다. 이 둘을 수반했을 때 과학의 요새의 문은 쉽게 열린다는 것이다.

라경호의 『사시절 입는 옷』(1988) 역시 과학적 합리성이 수반된 열정이 얼마나 긍정적인 성과를 이뤄내는지 잘 보여준다. 고등중학교 화학소조원인 세진과 호일이는 “온도와 색깔을 마음대로 조절하는”³⁹⁾ “사철옷”을 개

38) 조희진, 『밝혀진 유전의 비밀』, 『(과학환상소설집)번개잡이비행선』, 금성청년출판사, 1988, p.94.

발한다. 이 옷은 주변의 온도에 관계없이 입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한 벌이면 어린아이가 자라서 할아버지가 될 때까지”는 물론 “750년은 넉넉히”(p.45) 입을 수 있는 옷이다. 문제는 이 사철옷이 얼마나 정확하게 작동하는지의 여부다. 앞으로 유명해질 것으로 들떠있는 호일리와 달리 세진이는 직접 자신이 실험을 해 보기로 한다.

“실지 추위 속에서야 어디 해봤니? 우리는 꼭 해봐야 해, 그것이 과학자의 연구태도라고 봐, 세상에는 다되었다고 큰소리를 쳤다가 웃음거리가 된 실례가 좀 많니?”

호일리는 자기를 설복하려 드는 세진이가 답답해보였다. 그의 <고집>이 또 발동이 걸린 것이다. 일단 발동이 걸린 그 <고집>을 돌려세우기란 조런치 않았다.(p.51)

세진의 “고집”은 곧 과잉열정의 다른 이름이다. 세진이는 “짐승이건 사람이건 생명체는 모조리 얼음장”(p.58)으로 만들어 버리는 “냉동실험실”에서 직접 실험을 하기로 결심한다. 게다가 냉동실험실에는 허가 없이는 출입을 할 수 없는 곳이다. 하지만 세진이는 치밀한 계획을 세워 냉동실험실에 진입한다. “삶과 죽음과의 싸움”이 될 수도 있는 이 실험이야말로 과잉열정이다. 하지만 다른 점은 과학적 “량심”과 합리성이 결합된 과잉열정이라는 것이다. 세진이를 과학적 열정으로 이끄는 것은 “과학탐구의 기쁨을 맛보는 순간”의 희열과 과학자의 “량심”이다. 특히 과학자의 양심은 진정한 과학탐구의 기쁨을 맛보는 전제가 된다. 세진이가 목숨을 건 실험을 하는 이유는 “추위 속에서도 제대로 작동하는가 확인해보기 전에 사철옷

39) 라경호, 『사시절 입는 옷』, 『(과학환상소설집)번개잡이 비행선』, 금성청년출판사, 1988, p.47.

을 숨씨전람회에” 내놓는 것은 “량심이 허락하지 않았”(p.60)기 때문이다. 그래서 세진이는 이 실험을 위해 차근차근 각 단계의 실험들을 미리 해본다. 그리고 안전한 실험을 위한 준비도 마련해 놓는다. 마침내 죽음의 위험을 무릅쓰고 냉동실 실험을 마쳤을 때 세진이는 사철옷의 과학적 결함과 보완책을 발견한다.

“세진아, 너는 진짜 과학자다. 과학자는 그래야 한다.”

(중략)

“세진아, 너는 나에게 큰 것을 가르쳐주었어. 나는 너처럼 언제나 자신에 대한 높은 요구성을 제기하고 진지하게 파고들어야! 하마트면 나는 큰소리치고 이슬처럼 사라지는 얼뜨기과학자가 될번했어”(p.61)

작품은 과학자가 지녀야 할 열정의 정체가 무엇인지 대답해주고 있다. 그것은 과학적 양심과 합리성이 수반된 과잉열정이어야 하며, 그때서야 비로소 진정한 “과학자의 연구태도”를 갖춘 “진짜 과학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황정상의 말처럼 “과학을 사랑한다고 하여 다 과학자로 되는 것은 아니라는 주제”⁴⁰⁾를 보여주고 있다.

신승구의 『무중력비행선』(1990)도 과학적 열정의 좋은 예를 보여주고 있다. 이 작품은 조금 특이한 면이 있는데, 기존의 작품에서 독단적인 인물은 부정적으로 묘사하는데 반해 여기서는 긍정적인 인물로 다루고 있다. 재미있는 점은 처음에는 부정적인 면으로 그리다가 나중에 모든 오해가 풀리는 방식으로 이야기를 전개해 가는 부분이다. 공화국창건기념일에 맞춰 열릴 전국발명전시회를 준비 중인 소조부책임자인 ‘나’는 새로 들어온 전학생이자 102번째 소조원 영림이가 못마땅하다. 직접 경험해보지 못한

40) 황정상, 앞의 책, p.114.

사람을 소조의 일원으로 받는 것도 불편했는데 온갖 사고를 치고 있기 때문이다. 출입이 금지된 도서관에 몰래 들어가 책을 읽다 문이 잠기자 2층 유리창을 깨고 뛰어내린다거나, 실험기구를 만든다고 공장에 갔다가 큰 소동을 일으킨다. 게다가 다른 조원들이 비행선 조립으로 고생할 때 혼자서 이상한 실험기구를 가지고 나무에 올라가 떨어지는 “괴이한 행동”을 하는 것이다. 소조책임자인 내가 자초지종을 묻자 영림은 무중력 비행선을 만들기 위한 준비라고 말한다. 하지만 나는 영림에게 “허파에 바람든 소릴 작작해”라고 비판한다. 과학적 판단이 결여된 행동이라 여겼기 때문이다. 결국 영림에 대한 오해가 풀리는 지점은 영림이가 죽음을 무릎 쓰고 무중력 실험을 강행한 이후이다. 모두가 준비 중이던 “속도도 빠르고 휘발유도 적게” 쓸 수 있는 “특수합성수지로 만든 꼬마비행기”⁴¹⁾ 대신 “무중력 발전기”를 개발하기 위한 것임을 알게 된 것이다. ‘나’는 사람들에게 그간 영림의 과학적 준비를 설명하며 “과학을 연구하자면 밤낮을 몰라야 하는거야.”(p.36)라고 말한다. 영림의 그간의 행동을 과잉열정이 아닌 진정한 과학자의 태도이자 열정으로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아이들이 끊임없이 새로운 과학기술을 향해 나아가게 만드는 동력은 ‘과잉열정’이다. 이것은 결코 만족할 줄 모르며, 끝을 모르는 에너지이다. 문제는 과잉의 통제이다. 과잉열정은 불안하며 위험한 존재이기 때문이다. 결코 죽이거나 제거할 수 없는 이 열정을 제어하기 위해 등장한 것이 “인간을 통제하는 것은 사상의지”⁴²⁾라는 ‘과학적 합법칙성’이다. 그래서 작가들은 과학적 합법칙성을 동원한 과학적 열정을 강조하는 작품들을 마치 ‘백신’처럼 독자에게 제공하고 있다.

41) 신승구, 『무중력비행선』, 『(과학환상소설집)지구밖으로』, 금성청년출판사, 1990, p.22.

42) 유준, 『미지의 탐구』, 『청년문학』, 2001.8, p.55.

그런데 여기에는 어떠한 불가피함이 느껴진다. 리금철의 『탐험선이 떠난뒤』의 대사-“저 애들도 우리 소조원인데… 그러니 믿어야지 뭐.”(p.30)-에는 영원히 죽지 않는 외설적 불멸성을 지닌 아이들을 과연 ‘영원히 통제할 수 있을까’라는 회의감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제해야 한다는 의무감 같은 것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 함축되어 있는 것처럼 보인다. 다시 말해 ‘왠지 알 수 없는 불길함이 느껴지지만 저 애들도 조국이 지켜줘야 할 인민인데…그러니 믿어야지 뭐’라는 자조 섞인 심리 같은 것 말이다.

IV. 결론

이상으로 북한 과학환상문학에 나타난 과잉열정과 이에 대한 해결방법을 살펴보았다. 이상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북한 과학환상문학은 등장인물의 차이를 소거한다. 이는 우선 작품의 구조 속에서 드러나며, 인물들이 자신의 개체성을 소멸시키는 것을 통해 가능해진다. 이는 이상적인 공산주의자 만들기라는 북한 문학의 전형적인 모습이기도 하다. 둘째, 개체성의 거세를 통한 동일자의 생산은 어린이에게 내재된 것에 대한 두려움의 또 다른 모습이다. 과학환상문학에서 계몽의 서사가 반복되는 이유는 계몽적 훈육관 때문만은 아니다. 여기에는 어린이에게 내재되어 있는 예측불가능성, 폭력성, 광기 등 때문이다. 이는 결코 소멸되지 않은 채 끊임없이 공동체를 위협한다. 특히 이기주의나 영웅주의 등은 열정의 과잉과 폭주를 일으켜 세계를 파국의 상태로까지 몰아갈 수 있는 위험한 것이다. 따라서 이것은 통제의 대상이 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과학환상문학은 계몽의 서사를 포기할 수 없는 것이다. 셋째, 과잉열정의 억압기제로 과학적 합리성을 강조한다. 작품 속 어린이들의 이기심과 욕심 그리고 자만심

은 마치 죽지 않은 괴물(undead)처럼 만족할 줄 모른다. 만족할 줄 모르는 욕망은 필연적으로 과잉을 초래하는데, 과학적 합리성이 과잉열정에 대한 방어기제로 등장한다. 과학환상문학은 과잉열정으로 인한 위험성을 강조한다. 과잉과 폭주가 어떻게 세계를 종말로 몰아가는지를 보여주며, 동시에 이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과학적 합리성임을 강조한다. 이러한 논리구조는 결국 열정과 과학이 결합된 '과학적 열정'으로 귀결된다. 즉 유토피아를 향한 열정에 과학적 합리성을 장착한 '과학적 열정'이야말로 북한을 유토피아로 진입시키는 지름길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과학환상문학이라는 텍스트는 이중적이다. 한편으로는 결코 죽지 않는 욕망으로 유혹하면서 또 다른 한편으로는 욕망을 향유한 어린이들에게 깊은 죄의식을 선사하기 때문이다. 이는 독자들에게 욕망하는 법을 알려주는 것이자 동시에 왜 욕망을 배반해야 하는지 알려주는 것이기도 하다. 그런 면에서 북한 과학환상문학은 독자들에게 무엇을 두려워해야 하며, 그 두려움의 존재를 극복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 지를 반복적으로 보여줘야 한다. 북한 과학환상문학이 계몽의 루프(loop)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도 이 때문이다.

【참고문헌】

1. 기본 자료

- 김정일, 『주체문학론』, 조선로동당출판사, 1992.
 김정희 외, 『번개잡이 비행선』, 금성청년출판사, 1988.
 김중수 편, 『열을 내는 꽃』, 금성청년출판사, 1991.
 박종렬, 『두개의 화살』, 금성출판사, 1989.
 조천중, 『남색하늘의 나라』, 금성청년출판사, 1985.

- 조천중, 『새벽운석 탐사대』, 금성청년출판사, 1979.
 조희건 외, 『지구밖으로』, 금성청년출판사, 1990.
 황정상, 『과학환상문학창작』, 문학예술종합출판사, 1993.
 _____, 『푸른 이삭』, 금성청년출판사, 1988.
 『아동문학』, 『청년문학』, 『조선문학』 등

2. 논문 및 단행본

- 고장원, 『세계과학소설사』, 채륜, 2008, pp.1-378.
 권현익·정병호, 『극장국가 북한』, 창비, 2013, pp.1-339.
 마성은, 『리금철의 과학환상소설에 관한 고찰』, 『아동청소년문학연구』6호, 한국아동
 청소년문학학회, 2010.6, pp.341-373.
 문강형준, 『파국의 지형학』, 자음과모음, 2011, pp.1-222.
 복도훈, 『북한 과학환상소설과 정치적 상상의 도상(icon)으로서의 바다』, 『국제어문』
 65, 국제어문학회, 2015.6, pp.73-100.
 B.R.마이어스, 『왜 북한은 극우의 나라인가』, 시그마북스, 2011, pp.1-199.
 슬라보예 지젝, 이현우(역), 『폭력이란 무엇인가』, 난장이, 2012, pp.1-335.
 _____, 『HOW TO READ 라캉』, 지식하우스, 2012, pp.1-204.

Abstract

Excessive Passion and Scientific Solution
in North Korean Science Fiction

Seo, Dong-soo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image and cause of characters suppressing their desire in North Korean science fiction. All children in scientific and fantastic literature suppress their desire. Characters have their personality at the beginning of literary works, but all of them show same image at the ending of works. That's the reason why North Korean people have particular opinions about children. Children in scientific and fantastic literature suppress their selfishness, self-sufficiency, heroism, and so on, because this matter is related to essential problem, which is beyond moral enlightenment towards negative mentality. The essential problem is a fear of 'children'. In North Korea, children are regarded as incomplete human beings who are not yet corrected or should be corrected. Their inner world is regarded as chaos and intemperate libidinal condition. Therefore, in North Korea, the essence of children is focused on unpredictability and out-of-control. However, the real fear of children character is its effect. The thing of 'unpredictability', which does not die and can be changed freely, may drive into apocalyptic catastrophe from Utopia that North Koreans want. North Korean scientific and fantastic literature controls the excessive passion of children by combining it with scientific character.

Key Word : North Korean, science fiction, children, moral, excessive passion

서동수

소속 : 상지대학교 특성화기초대학 교수

전자우편 : utopia1970@hanmail.net

이 논문은 2016년 6월 30일 투고되어
2016년 7월 31일까지 심사 완료하여
2016년 8월 5일 게재 확정됨.